Plinius Tautoro

음악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미려한 음으로

글 정우광

수입원 태인기기 (02)971-8241
가격 1,200만원(포노 옵션 별도) **주파수 응답** 20Hz-20kHz(±0.2dB) **디스토션** 0.05% 이하
험&노이즈 -80dB **입력 감도** 125mV(RCA), 62mV(XLR)
크기(WHD) 44.5×16×47.5cm **무게** 16kg

오디오 앰프에서 프리앰프의 존재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예전의 오디오 기기들은 입출력의 전압이나 전류 등의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오디오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이러한 각종 기기들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요즈음의 오디오 기기들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간의 연결 시에 직결해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일반이다. 이 때문에 프리앰프의 존재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아가서는 음악의 재생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순수한 음의 재생에 장애가 되는 컴포넌트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이엔드 음향을 즐기는 애호가들은 프리앰프의 존재를 한시라도 등한시해본 경우가 없다. 오디오 기기가 단순히 소리만 재생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재생하는 악기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라고 볼 때에, 프리앰프의 존재는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플리니우스의 시스템은 탄탄한 기술적인 기반 위에 매우 성실한 만듦새와 재생음을 튜닝하는 음악성까지 겸비한 실력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아오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성격대로, 물건을 만들어놓은 솜씨나 재생음의 성격은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이다. 솔리드스테이트 앰프로 수많은 부품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감지하여 풍성한 음악성을 지닌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동사의 제품에는,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대충 만들어진 법이 없다. 모든 제품들이 설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소홀한 구석이 없이 치밀한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품 중에 프리앰프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번의 시청 모델인 토토로는 동사를 대표할 만한 제품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출시된 이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토토로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언어로 뉴질랜드 북섬의 중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인구가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동사의 대표 격인 제품의 이름으로는 너무

호흡의 리얼리티가 매우 뛰어나다. 스피커의 존재는 사라지고 실내에는 악기와 가수만이 남아 있는 듯한 음의 향연이 펼쳐진다. 악기의 음이 미려하다거나 옥구슬이 흘러가는듯한 매끄러움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오는 듯한 생동감이 있다.